

여중생 감금 성매매 사건 수사 '흐지부지'

전북경찰, 747명 중 53명 만 입건...6개월 만에 종결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가출 여중생 감금 성매매 사건' <본보 6월5일자 7면>이 경찰 수사 6개월 만에 '알맹이' 없이 종결됐다. 당시 성매수 혐의자 중 의사·교수·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다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여성·시민단체도 '시민감시단'을 발족하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혐의자 중 7%만 입건=사건을 맡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체 수사 대상자 747명 중 16.7%에 불과한 125명만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53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72명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입건자는 대부분 광주지역 20~30대 남성이었다고, 의사·교수·의사·공무원 등의 직업도 있었지만 40명 이상이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5명 만 소환조사

경찰은 수사 시작과 함께 피해자 A양(14·중 2년 중퇴)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인터넷 채팅 내용 등을 분석, '성매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747명의 남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A양이 사진을 보고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125명에 대해서만 소환 조사를 벌였고, 622명(83.2%)에 대

해서는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진행됐다"며 "모든 증거가 입증된 남성에 한해 입건 수사를 했고, 증거가 조금이라도 불충분한 남성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차원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상공개도 어려워=입건된 53명에 대한 신상 공개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들의 신상은 내년 11월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가 바뀌면서 내년 2월4일부터는 피해자의 가족과 교육기관장 등 제한된 사람만이 경찰서에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말 뿐인 '감시단' 운영=광주YWCA 성폭력 상담소 등 6개 광주지역 여성·청소년단체는 사건이 발생한

자 '여중생 성매수 사건 시민감시단'을 결성한 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감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광주YWCA 관계자는 "지역적으로 떨어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기자회견을 시

부인하면 '무혐의'

작으로 매달 캠페인을 벌였지만 9월 이후에는 내부 사정상 활발한 감시활동을 펼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검·경찰이 성매매 사건에 관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 다른 여성·청소년 단체들과 대책을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은 A양을 광주시내 모델 4곳에 감금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유인한 남성 수백 명과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1억2천여 만원을 갈취한 진모(여·20·광주시 북구)씨와 진씨의 남자친구 김모(20)씨 등 3명을 미성년자 악취유인 등의 혐의로 지난 6월5일 구속했다.

연희기자 ahj@kwangju.co.kr



조선대 '잡 페스티벌'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체육관에서 28~29일 열린 '2007 Job Festival' '직업정보관'(Job school) 코너에서 광주여대 미용학과와 학생들이 여고생들에게 메이크업 시범을 보이고 있다. 광주·광주지방노동청·조선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잡 페스티벌에는 한국전력공사·대한주택공사·광주은행·삼성생명 등 15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28일 하루에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입사지원서를 가져갔다.

직업정보관(Job school) 코너에서 광주여대 미용학과와 학생들이 여고생들에게 메이크업 시범을 보이고 있다. 광주·광주지방노동청·조선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잡 페스티벌에는 한국전력공사·대한주택공사·광주은행·삼성생명 등 15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28일 하루에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입사지원서를 가져갔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 30대 사망

충북 청원서, 국내 첫 사례... 원인사고 논란 일 듯

30대 굴삭기 기사가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

28일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S산업 채석장에서 굴삭기 기사 서모(33)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 회사 인부 권모(58)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 권 씨는 "발견 당시 코에서 피를 흘렸고, 휴대전화 크기로 검게 그을려진 셔츠의 왼쪽 주머니 안에는 배터리가 녹아 달라붙은 휴대전화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신을 검시한 충북대병원의 김 훈 교수는 "환자의 왼쪽 가슴에 화상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돼 폐출혈 증상도 발견됐다"며 "시신의 상태와 발견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휴대전화 배터리의) 폭발 압력으로 폐와 심장이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에 의한 사망 사고는 올해 6월19일 중국에서 한 건 보고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국내

유명 전자업체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은 특성상 일반 환경에 노출돼 열을 받거나 충격을 주면 발화·폭발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조업체는 "예전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폭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씨가 사용한 배터리는 전기차단 회로가 장착된 리튬 폴리머 제품으로, 서씨가 뜨거운 열에 불에 탈 수 있지만, 폭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연희뉴스

'여중생 성매매' 사건을 부끄러운 뉴스 2위

'사람인' 직장인 설문

'여중생 성매매 사건'이 '올해의 부끄러운 뉴스' 두 번째에 올랐다. 28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7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1.7%(복수응답)인 311명이 '여중생 성매매 사건'을 '올해의 부끄러운 뉴스' 2위로 꼽았다.

1위는 '보험금 노린 부모 살해 사건'(337명, 45.2%)이었다. 한국사회를 뒤흔든 신정아 게이트는 40.8%로 3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아프간 피랍 사태(37.6%)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37.4%) ▲죽 잇는 공인들의 학력위조 사건(36.2%) 순이었다.

이외 경찰관 연쇄 강도·강간 사건(32.8%), 고교 수학여행 집단 성매매(31.4%), 월급 88만원 비정규직 문제(29.8%), 삼성 비자금 의혹(29.1%) 등도 부끄러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양읍 아파트서 화재

40대 시각장애인 숨져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28일 오후 4시24분경 광양시 광양읍 J아파트 4층 서모(46)씨 집 안방에서 불이나 침대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으나 서씨는 불길을 피하지 못해 화상과 연기에 질식사했다.

경찰은 서씨가 시각장애 4급을 앓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우울증 자살 잇따라

여대생·50대 외로움 못견뎌 목숨 끊어

가족과 떨어져 살던 여대생과 아버지가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자살했다.

28일 오전 8시22분경 광주 N대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이 대학 1년 강모(18)양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같은 방을 쓰는 친구(여·18)가 발견, 경

찰에 신고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양은 지난 3월 대학에 입학, 광주에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왔으며, 별거 중인 부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활

발한 성격의 강양이 최근 '우울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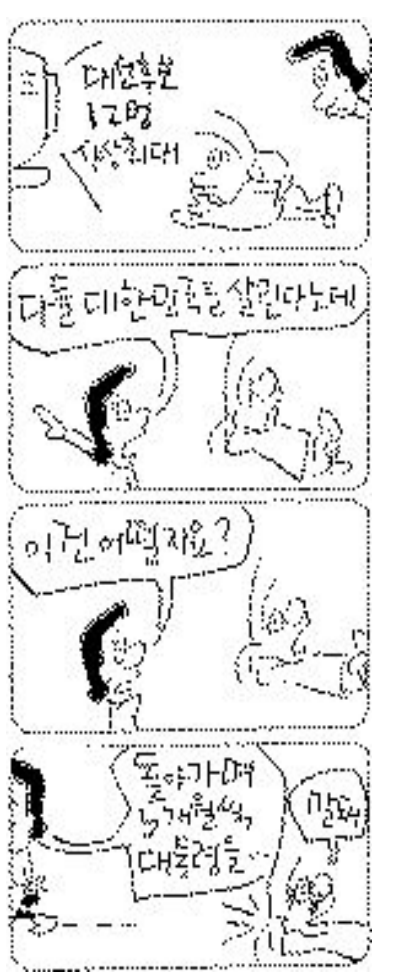
전날인 27일 밤 9시10분경은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사는 한모(50)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우울증을 앓던 한씨는 고등학교 졸업반인 딸(18)이 이달 초 현상 실습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로 떠나자 우울증이 심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인 한씨는 5년 전 부인과 이혼을 한 뒤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이은미·김여울기자 wool@

나원침 (7370)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products including DS건설(주), KCC강도, 시스텔형호생안·시공, and (주)본드나리.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40대 정신병원 탈출 동료 부인 협박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중인 40대 병원을 탈출한 뒤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부인을 찾아가 협박하다 달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8·북구 우산동)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북구 G 아파트 박모(여·45)씨의 집에 택배원으로 가강해 들어간 뒤 "남편을 당장 퇴원시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흥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정씨는 지난달 13일부터 담양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날 "코가 아프다"며 관리직원 2명과 함께 외출해 광주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정씨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붙잡혔는데 "같이 입원한 환자가 외출을 하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나가지 못하는 게 안쓰러웠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